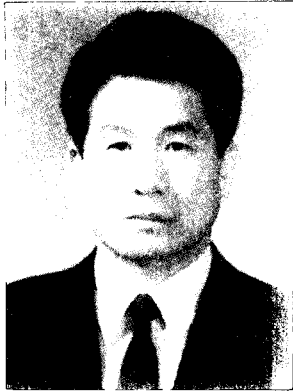


# 환경과 경제개발

**환** 경보전과 경제개발이 상충관계에 있다고 말한다면 이제는 생각이 좀 모자른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다. 적어도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다. 앞으로의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아무 노력도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 놓아두어도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ESSD가 달성될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마치 멀쩡한 하늘에서 공짜돈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같다.

ESSD 달성노력을 위해서는 적절한 개념정리와 실천전략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우선 환경(자연환경)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산정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 바탕위에서 자연환경이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최종소비재로써, 또한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즉 오염물질 배출이 환경이라는 생산요소의 사용을 의미함)로써 사용된다고 볼때 가능한한 소량이 소비(또는 투입)되어 가능한 많은 효용(또는 생산량)을 얻는 노력이 기울여지는 그러한 메카니즘이 갖추어져야 하겠다.

종래의 간단한 경제성장 모델에서 자본과 노동력의 투입량의 증대뿐만아니라 기술진보에서 성장요인을 찾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구하는 개발과 환경보전이 통합된 ESSD에서는 환경이라는 투입요소와 관련된 기술진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같은 기술진보는 광의의 의미로써 일반적인 기술개발, 즉 환경오염처리(또는 예방), 폐기물처리체계, 저오염공정 등과 직접 관련된 기술개발은 물론, 폭넓게 행정체계, 산업구조, 시민의 생활양식 등까지도 포함한다. 이것이 가능키 위해서는 미시적인



분야에서부터 거시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같이 움직여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환경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의 중요성을 주목하게 된다. ESSD달성을 위한 산업구조로의 이행은 환경친화적 산업의 육성, 저에너지/자원형 산업의 활성화, 또한 환경산업 자체의 규모증대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각 산업에 제공되는 제반환경기술들의 보급과 개발이 환경산업의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관심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돌려 보았을 때, ESSD성취를 위한 의지, 환경가치 산정을 위한 제반 정책노력이 어느정도 엿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환경산업분야의 활성화에는 그 관심의 도나 노력집중이 최근까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시장개방과 국제환경움직임을 관찰할 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국내환경기술시장과 국제시장에서 동시에 좋은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또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현재의 환경산업의 공급여건은 인력, 기술, 정책,自救노력면에서 미진한 상태에 있어 보인다. 공급여건을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적절한 시기와 속도를 갖춘 환경산업의 내수시장 확대와 긴밀한 연계를 이루어야 하겠다.

간추리자면, 환경과 경제개발이 통합된 개념은 환경이라는 투입요소와 관련된 기술진보라는 면에서 이해될 수 있고, 전략의 구체화는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